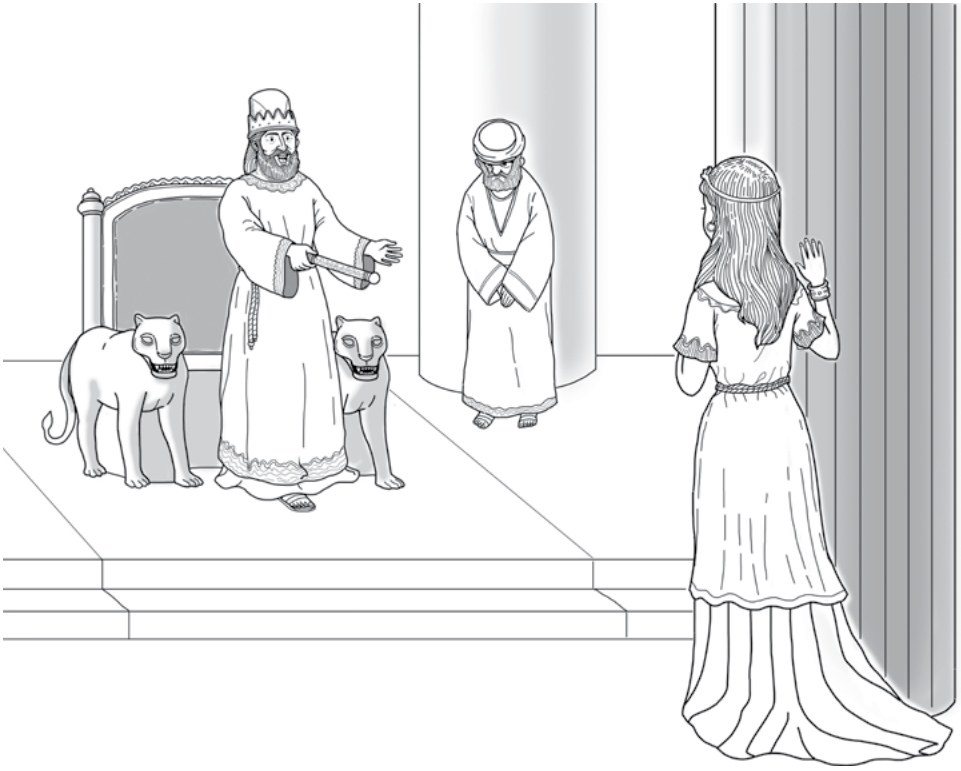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47 죽으면 죽으리라

에 4:1~17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78장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배울 말씀

1. 민족을 구하기 위해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결심과 그 결과를 압니다.
2. 에스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 ] (에 4:16)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을 떠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후 계속해서 바사(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통치할 때 유대인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아 왕비가 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왕궁의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고 왕에게 고하여 왕의 목숨을 구하지만 아무런 상을 얻지 못합니다. 그 후에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에게 원한을 품고 유대인을 진멸하고자 '부르' 즉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 13일을 정하고 왕에게 부탁하여 이 날에 '모든 유대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무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민족의 죽음을 눈 앞에 둔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의 잔치를 베풀어 왕과 하만을 초대한 후 왕이 소원을 물을 때에 하만의 흉계를 왕에게 낱낱이 고합니다. 이로 인해 하만과 그의 아들들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자신이 준비했던 50규빗 높이의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르드개는 왕을 모살에서 구한 일로 뒤늦게 상을 받아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됨으로 아달월 13일과 14일에 도리어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도륙하게 됩니다. 이에 모르드개는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부림절로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에는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 전부를 낭독합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 4:14)

For if you remain completely silent at this time, relief and deliverance will arise for the Jews from another place, but you and your father's house will perish. Yet who knows whether you have come to the kingdom for such a time as this? (Es 4:14)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을 찾아 적어 봅시다.

말씀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장절을 적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 적어보세요.

①

②

③

2 왕을 구한 모르드개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 반면, 악한 하만은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이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은 상황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시 37:1~11)?

3 유대인을 전멸하라는 조서가 내리자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에 4:13~14).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 ) 생각지 말라
☞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심을 버리라.

네가 만일 ( )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큰 죄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 ) 누가 아느냐
☞ 내게 있는 젊은, 힘, 재능, 환경 등 모든 것은 바로 지금 잃어진 영혼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4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권유를 받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굳게 결심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형제 자매님들과 에스더의 결심에 대해 교제해 봅시다(에 4:16, 눅 22:42).

나의 신앙의 결단 :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에 4:13	
월	에 4:14	
화	에 4:16	

수

에 8:2

목

요 10:28

금

롬 8:38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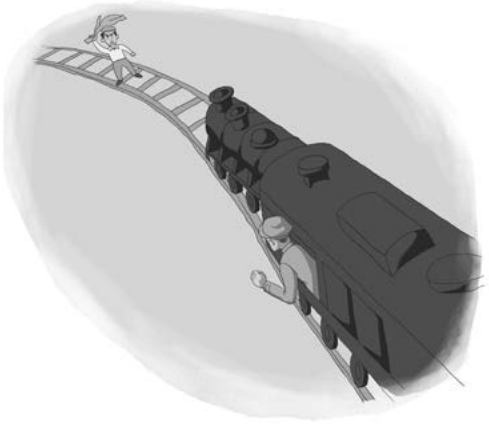
롬 8:39

고귀한 희생의 대가

스코틀랜드 북부에 깊은 계곡을 가로질러 놓은 철로가 있었는데 철로 아래 계곡으로는 급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심한 폭풍으로 계곡의 강물이 무섭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양치는 소년이 이곳에 나왔다가 심한 급류 때문에 철교의 중앙교각이 물에 완전히 휩쓸려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곧 승객을 실은 기차가 이곳을 통과하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옷을 벗어서 철로 가운데 선 채로 미친듯이 흔들었습니다. 기관사가 소년을 발견하고 속히 철로에서 물러나라고 기적을 울렸지만 소년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옷을 흔들었습니다. 기관사는 소년이 물러가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승객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기차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와 있었는지를 보고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구사일생이었어!"라고 한 마디씩 했습니다. 그때 기관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리와서 우리 생명을 구해 준 이를 보시오." 기차 앞에서 사람들은 갈기갈기 찢긴 소년을 보았습니다. 기관사는 때맞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그 순간 소년은 기차에 치이고 만 것입니다.

한 소년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후 5:14)



질문 있어요~

역대하 22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 42세라고 기록 했고...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나이 22세라고 기록 했는데... 서로 다르게 기록된 이유는 뭔가요?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야의 나이가 22세로 기록 되었고 역대하 22장 2절에는 42세로 기록되었는데, 22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21장 5절에 의하면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왕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가 32세이며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가 40세 때에 아들이 42세가 될 수 없겠지요.

역대하에 잘못 기록된 이유는 원본이 없고 사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원본에서 사본으로 옮겨 기록된 것이 천 년 정도 되었습니다. 기록되는 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틀린 것을 알면서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 (계 22:18~19)